

시민이 주도하고 지역이 함께 푼다..45개 기관 맞손

✎ 이한영 기자 | ⓒ 승인 2025.06.24 16:28

대전사회혁신센터, 지역문제해결플랫폼 출범
주거·안전·일자리 등 실생활 중심 의제 10건 실행
지역이 스스로 해답 찾는 구조, 대전형 모델 구축



▲ 사회혁신센터 24일 2025 지역문제해결플랫폼 의제실행 협약식 장면. 사진 앞줄 가운데 이상호 센터장

대전에서 시민의 시선으로 문제를 정의하고, 지역의 다양한 주체가 해법을 찾는 협업 플랫폼이 한층 더 진화했다. 민간과 공공, 학계가 유기적으로 협력하는 '2025 지역문제해결플랫폼'이 본격 출범하며, 일상 밀착형 지역현안 해결에 속도를 내고 있다.

대전시 사회혁신센터는 24일, 민·관·공·학 협력체계 기반의 '2025 지역문제해결플랫폼 의제실행 협약식'을 개최하고 본격적인 과제 수행에 돌입했다.



▲ 협약서 서명 진행

협약식에는 공공기관, 대학, 공기업, 민간단체 등 총 45개 기관이 참여했다.

이 플랫폼은 관 주도의 일방적 해결 방식에서 벗어나, 시민이 직접 지역 문제를 제안하고, 이를 다양한 주체가 협업을 통해 해결하는 구조다. 이는 단순 행정 처리에서 벗어나 실질적인 정책 대안을 만들어내는 지속가능한 거버넌스로 평가받고 있다.



▲ 협약식 장면

올해는 대전디자인진흥원, 한국장애인고용공단, 한남대학교 등 10개 기관이 신규 참여하며, 2024년 보다 범위와 역량이 대폭 확대됐다. 플랫폼은 모두 10개의 의제를 선정해 실천에 나서며, 주거 취약 계층 지원부터 전통시장 활성화, 어린이 교통안전 등 지역민 삶과 밀접한 주제들로 구성됐다.

특히 첫 번째 실행 의제로는 '쪽방 주민과 홀몸노인 등 취약계층의 주거환경 개선' 과제가 선정돼, 현장의 시급한 수요를 반영하고 있는 점이 주목된다. 그 외에도 △스쿨존 내 노란발자국 설치를 통한 어린이 교통사고 예방 △정감 넘치는 전통시장 만들기 등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문제 해결이 중심을 이룬다.



▲ 사회혁신센터 이상호 센터장이 환영사를 하고 있다

이상호 센터장은 "지역문제해결플랫폼은 단지 사업이 아니라, 새로운 협력의 방식이자 시민 주도형 혁신 모델"이라며 "지자체와 기관이 시민과 함께 문제를 공유하고, 직접 해법을 만들어간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고 설명했다.

이어 "지난해에는 35개 기관이 8개 과제를 함께 해결했고, 올해는 45개 기관이 10개 의제에 도전하는 만큼, 더욱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변화를 이끌어낼 수 있을 것"이라며 "참여기관의 전문성과 현장의 목소리가 결합해 대전형 혁신 거버넌스 모델이 뿌리내리길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대전사회혁신센터는 향후 실행 의제의 추진 경과를 시민과 공유하고, 실적 중심이 아닌 공공성과 지속가능성 중심의 성과 평가 체계를 정착시켜 나아갈 계획이다. 플랫폼 참여 주체들 간의 협력 사례도 정리해 향후 타 지역과의 공유·확산에도 나선다. /대전=이한영기자



이한영 기자 hy7337@hanmail.net

저작권자 © 충청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